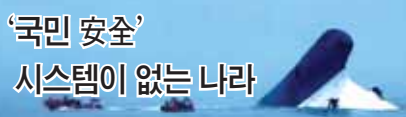


# 느슨해진 규제·감독기관 부패·돈벌이 업체 앞에 원칙·기본 무시



## ② 60년 지나도 변한 게 없다

“이제 두 달 정도 뒤면 브라질월드컵대회가 열립니다. 그 때까지 이러한 분노와 반성, 그리고 각오가 계속 될까요?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 대처를 어떻게 하는 지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대학교수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후진국형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또 “안전을 중시하지

면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개개인의 불편을 동반하게 된다”며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제변에 깔려 있는 ‘대중’ 문화와 ‘특권 의식’ 등의 습관도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53년 부산 대대포 창경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20년 단위로 사망자가 200명이 넘는 대형 해난사고가 반복됐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더 충격적인 것은 창경호 당시의 사고 원인, 사고 당시 구조 대책 미흡, 이후 수습 실패 등과 너무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61년 동안 경제적 부와 국가의 위상은 크게 향상됐지만, 예나 지금이나 기본과 원칙은 ‘돈’ 앞에서 철저하게 ‘무시’됐다. 정부부처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리·감독기관은 부패돼 있으며,

### 사고 원인·구조 활동·수습 대책 등 과거 사고와 유사 승객버린 선원 등 ‘숨방망이’ 처벌도 참사 되풀이 주범 대충문화·특권 의식 등 악습 없애고 안전 관심 지속돼야

업체는 이를 철저히 이용하며, 수익을 불려 나갔던 것이다. 창경호 침몰 사고는 1953년 1월9일 여수항을 출발해 부산항으로 향하던 정기 여객선 창경호가 부산 서남쪽 8km쯤에 위치한 대대포 앞바다 거북선 부근에서 강풍을 만나 침몰한 사고다. 당시 승선인원 236명 중 선장과 선원 3명, 중학생 2명, 군인 1명을 제외하고 229명이 익사했다. 당시 창경호는 강풍에 운항을 강행했고, 쌀 400가마까지 실어 과적 논란까지 일

었다. 사고원인조사에 나선 국회특별조사단은 이 회사 창고에서 구명보트 한 척 및 구명복 70벌을 발견하기도 했다.

1970년 12월15일 새벽 1시 50분께에는 대마도 서쪽 100km 해상에서 제주 서귀포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던 남영호가 침몰했다. 전날인 14일 오후 5시 서귀포항에서 승객 210명과 연발 성수기용 갑골을 싣고 출항한 뒤 서산포항에서 승객 121명과 화물을 더 싣고 밤 8시10분께 부산을 향해 출

항했다. 갑자기 강풍이 불자 갑판 위에 쌓아 놓은 갑골 상자가 갑판 좌측으로 허물어졌고 순간 선체가 함께 기울었고, 긴급구조 신호(SOS)를 타전했으나 해상 부근 어느 무선국에서도 이 조난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다. 당시 남영호는 정원이 290명이었으나 승객 311명과 선원 20명 등 331명과 40t의 화물을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풍주의보로 인해 4일간 제주에 묶여 있던 승객과 갑골 등 화물을 무리하게 선적한 것이다. 당시 선장이 항해 10일 전에 올중 2등 항해사로 바뀌는 등 선원들의 경험 미숙도 사고 피해를 키웠다.

이 사고 이후 1973년 여객선운항관리제도가 도입돼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의 화물적재량을 점검하고 있으나 세월호 참사

에서 드러났듯 실제 화물적재량과 해운조합에 보고한 기록이 서로 다르게 작성돼 있는 등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남영호 승객 수는 274명으로 등재됐지만 사고 후 338명으로 최종 확인됐고, 64명은 승객 명부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1993년 10월10일 정원 초과 탑승으로 292명의 사망자를 냈던 서해훼리호 참사가 발생한 뒤 여객선 승객은 승선권을 구입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를 반드시 쓰도록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의 피해 규모에 비해 승객을 저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처벌도 사고 반복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더딘 구조에 안타까운 이별 준비

### 임시 범당 예불·천주교 미사 참석 등 종교시설 찾아

“○○야 보고 싶은 내 동생, 누나가 정말 많이 사랑해. 다음 생애에도 누나 동생으로와, 그때 더 잘해줄게. 빨리 나와줘. ○○야 보고 싶다”, “오늘은 볼 수 있겠지, 내말야. 엄마가 따뜻한 밥해놓고 기다릴게”

침몰한 세월호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가족들이 써붙인 쪽지의 내용이다. 27일 진도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한불교조계종 임시 범당 천정에 매달린 수백장의 쪽지에는 자식과 가족을 잃은 부모형제들의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고 초기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의 구조작업에 희망을 걸고 지켜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은 종교의 힘에 기대어 자식의 생환을 바라거나 조심스럽게 실종 가족과의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사고후 진도실내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더딘 구조작업과 시신 인양 소식을 접한 뒤 언제부턴가 떠나할 것 없이 천막으로 지어진 임시 범당을 찾거나 천주교에서 마련한 미사에 참석해 기적같은 귀환을 기원하거나 자식과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체육관 옆 범당을 찾는 가족들은 불상 앞에서 예불을 올리거나 탁자에 준비된 손바닥 크기의 염원 쪽지에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실종자와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생환 가능성을 낙담한 듯 답답하게 스님과 얘기를 나누다가도 불현듯, 아직 내 자식이 저 바닷속 컴컴한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소리치는 등 좁쳐림 감정을 주스르지 못했다. 초췌한 모습의 40대 중년 남성은 “침몰한 세월

호에 동생과 함께 올랐다”며 답답한 어조로 스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돌연 “동생은 차디찬 바닷속에 있는데 살아나온 나는 동생을 위해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통곡했다.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1m 크기의 불상 앞에서 자식의 생환을 빌며 예불을 올리던 한 중년 여성은 중간 중간 북받쳐오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한참을 울드러 울기도 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를 중심으로 매일 진행되는 미사에도 실종자 가족 10~20명이 꾸준히 찾아와 마음을 안정시키며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의 기적을 기원하고 있다. 미사 중에도 어두운 배안에 갇힌 자식들을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족들은 흐느끼며 몸서리쳤다. 미사를 집전한 한 사제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으로 저희를 찾는 신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이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를 내밀어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상담을 맡고 있는 한 의료 관계자는 “의료 윤리상 많은 것을 밝힐 수 없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마치막까지 자식들의 생환을 바라고 있으며, 눈으로 직접 자식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부모들의 심리는 계속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실종자들을 최대한 빨리 물밖으로 꺼낸 뒤 가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와 동시에 적절한 심리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희망 메시지’ 가득 세월호 침몰 12일째인 27일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진도실내체육관 입구에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은 편지들이 붙어 있다. /진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안행부 “시·군·구에는 분향소 설치 말라” 논란

곳은 날씨에도 전국 곳곳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분향소’에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할 제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6일 광주·전남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세월호 침몰사 관련 지역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단 제목의 공문을 보내 28일 오전 9시부터 시·도청 소재지 별로 각 1개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안산지역 합동열결식 당일’까지 운

영토를 요청했다. 안행부는 분향소 설치 조건으로 시·군·구는 제외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또 설치장소는 시·도 청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요경비는 지자체 자체 예산(예비비 등)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문화광장 야외음악당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고, 시청 과장급 이상 간부 1명을 상주시켜 조문객을 받기로 했다.

광주시는 다만 안행부의 시·군·구 분향소 설치 제외 방침에 따라 애초 일부 검토했던 광주지역 자치구 내 분향소 설치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안행부의 조치에 대해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광주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슬퍼하며 애도하는 분위기에, 정부가 예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분향소 설치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

했다. 특히 이미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까지 받고 있는 전남지역 일부 기초 자치단체들은 안행부의 지침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임시분향소’가 마련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울림파크기념관 실내체육관에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12만명이 넘는 조문객이 다녀갔으며, 광주 YMCA 분향소를 비롯한 전남대 제1학생회관, 무안 전남도청, 목포역, 순천시청 민원주차장, 순천YMCA, 전남대 여수캠퍼스, 여수이순신광장, 진도 향토회관, 해남 군민광장 등 광주·전남지역 분향소에도 조문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진희기자 lucky@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 노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 관리소장 채용공고

- ① 단 지 명 : 금호주택단지
- ② 소 재 지 : 광양시 금호동 희망길 12-14
- ③ 단 지 현황 : 5,247세대
- ④ 자격조건
  - ① 주택관리사로서 시특별교육수료한 자 (소방안전관리 등 공동주택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 ② 40세이상 ~ 55세미만
  - ③ 500세대이상 3년이상 관리소장 실무경험자
- ⑤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주택관리사자격증사본, 시특별교육수료증사본, 기타서류(자격증사본)
- ⑥ 제출처 및 기한 (방문접수)
  - ① 제 출 처 : 광양시 금호동 희망길 12-14 제철화관 311호
  - ② 제출기간 : 2014년 4월 30일(수) 17시까지
  -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⑦ 채용방법
  - ① 1차 : 서류심사
  - ② 2차 : 인사위원회 면접
  - ③ 3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⑧ 문의전화 : 061)799-1631 ~ 5

광양제철주택관리소

## 건축설계현상공모

광주동명교회에서는 본당 증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설계업체 참여도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 건 명 : 광주동명교회 본당 건물 증축 및 현 건물 리모델링 설계 공모
- \* 일 시 : 2014년 5월 23일(금) 14 : 00
- \* 장 소 : 광주동명교회 101교실
- \* 참석대상 :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교회 건축 유경험자 및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자 또는 업체
- \* 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20번길 31 (동명동 6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동명교회

전화 062)232-1757